

# 명례방 모임

(구역 모임)

2026.03.



브루클린교구 베이사이드 한인천주교회

## 1. 시작기도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롭게 되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 + 기도합시다.
- ◎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2. 말씀 나눔

- 1) 말씀 듣기 : 에페 5,8-14(사순 제4주일 2독서)
- 2) 침묵 후 다시 한번 말씀 봉독
- 3) 말씀 나눔

### <묵상 더하기>

- 나는 어떤 빛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자문하고 있나요?
-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4) 자유 기도

## 3. 본당 공지사항 및 구역별 공지사항

- 3/25(수) 20:00에 성전과 수녀원에서 판공성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30(월) 14:00-16:00/18:00-20:00에 신자분들을 위한 판공성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사를 보고 나시면 꼭 성사표를 개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4/2(목) 20:00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영어), 4/3(금) 20:30 주님 수난 예식(한국어),

4/4(토) 20:00 부활성야미사(영어), 4/5(주일) 09:15 부활대축일미사(한국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한인 공동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체 기도와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4. 마침기도(본당 설립 30주년 기도문)

-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무수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 이제 저희는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며  
당신의 뜻에 맞갖은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삶의 무게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를 굽어보소서.
- 주님, 저희가 이 은총의 시기에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일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주님을 알고도 떠나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본당의 주보 성인이신 성 로버트 벨라민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5. 사목단상

### “판공성사? 고해성사?”

한국 가톨릭 교회는 초기 사제를 만나기 어려웠던 신자들이 1년에 두 차례는 사제를 만나 "고해성사"를 보았던 전통을 형성해 왔었습니다. 특별히 이는 사목적인 이유에서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고 신자들의 신앙생활, 면담과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판공성사의 본뜻은 ‘공로를 판별하는 성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림 시기와 사순시기에 바치는 고해성사를 판공성사라 부르는 이유도 ‘공로를 판별한다’라는 의미처럼, 다른 시기보다 특히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에 신자 스스로가 교회 앞에서 자기의 부족한 점과 허물을 깊이 성찰하라는 권고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판공성사는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에 고해성사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일 뿐이며, 그 본래 의미와 취지는 고해성사와 다르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분들 가운데 많은 분이 가톨릭의 일곱 성사 중 가장 부담스러운 성사는 '고해성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성찰해야 하고, 나의 허점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느껴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처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고해성사를 보기 꺼린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성찰하는 데 소홀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성찰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기 위해선 자주 고해성사를 바치는 것이 좋다고 교회는 권고합니다. 아울러 만약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지 못한 신자는 다른 판공 때나 적절히 다른 때라도 받아야 한다"라고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받을 은총의 지위를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